



“노조법 2·3조 개정 완성 끝장 투쟁한다”

금속노조, 1박 2일 집중투쟁 ... 기자회견·결의대회·선전전·투쟁문화제, 빗속 결기

금속노조가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을 방조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퇴진 ▲노조법 2·3조 개정 ▲불법파견 철폐를 촉구하면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집중투쟁을 벌인다.

전국에서 상경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25년 불법파견 방조,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회 앞으로 이동해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와 거부권 거부 투쟁문화제’를 연다.

노조는 비가 이어지는 날씨와 조합원들의 건강을 고려해 국회 앞 노숙농성을 금속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등 실내 취침으로 방침을 바꿨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통령실 앞 용산에 쏟아지는 빗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과 같다”라면서 “더는 야만적인 불법파견, 비정규직 착취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와 금속노조 등의 투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야합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9월 국회 통과 끝장 투쟁, 비정규직 차별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다.

차현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금속노조 6,300여 명의 동지가 불법 파견 소송을 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불법파견도 모자라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려 한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범진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투쟁사를 통해 “경찰이 집회 시위 예산 17억 원을 투입해 차벽 트럭을 산다고 한다”라면서 “재벌과 부자들 법인세, 부동산세를 깎아줘 59조 원의 세수가 구멍 난 마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 실패를 언론과 가짜 뉴스 탓으로 돌리며, 이동관을 불러들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라면서 “안타깝게 숨진 해병의 죽음을 조사하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부터 단속해야 한다”라고 비판

했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조속 판결 촉구 비정규직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재벌과 자본이 20년이 넘도록 마음 놓고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원인 중 하나는 대법원이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파견을 처벌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하기 때문이다”라면서 “금속노조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대법원이 2010년 불법파견 기준을 제시했으나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묵인하며 늦장 대응하고, 검찰이 사용자 불기소 남발과 솜방망이 기소하고, 법원은 10년 넘도록 기약 없는 늑장 재판을 한다”라고 싸잡아 규탄했다.

“윤석열 끌어내려야 온전한 노조법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 1박 2일 집중투쟁 마무리 ... 경찰 과도한 집회 자유 침해 철회

금속노조가 9월 21일 ▲윤석열 퇴진 ▲노조법 2·3조 개정 ▲불법파견 철폐 촉구 1박 2일 집중투쟁을 이어갔다.

금속노조는 9월 20일 오전 용와대 앞에서 시작한 1박 2일 집중 투쟁을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400여 명은 21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선전전을 마친 조합원들은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1박 2일 집중 투쟁을 정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와 거부권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 말 국회 앞에서 한 달 단식하며 배달호 열사 분신 20년 한을 풀겠다고 다짐했다”라며 “금속노조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열었고 그 힘으로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상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라며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으로 세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관철하자”라고 호소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악조건 속에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노조법 2·3조를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개정했을 때 우리 투쟁의 한 단계가 끝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하기 전에 윤석열은 거부권 운운하고 있다”라며 “민중생존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노조법 2·3조 개정을 온전히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20일 집중투쟁 1일 차 밤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금속노조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김영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장은 투쟁문화제에서 “윤석열 정부는 늘 MZ노동자 어찌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면서 “정작 청년노동자는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성 지회장은 “특히 하청 청년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은 커녕 천문학적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노조 가입이 두렵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영성 지회장은 “청년노동자가 노조할 권리, 당당히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가 꼭 필요하다.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할 이유다.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모니나 워 국제노총 인권·노동조합 권리 담당 국장은 연대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자주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모니나 워 국장은 “국제노총은 윤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에 맞서는 금속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라면서 “금속노조가 노조할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찰은 금속노조 1박 2일 집중투쟁 용와대 앞 결의대회와 국회 앞 밤샘집회를 금지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금속노조가 집회 금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경찰의 과도한 집회 금지 행위를 정지시켰다.